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로컬푸드 출하
농가 수수료 지원 계속

정읍시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의 여가를 가볍게 하기 위해 수수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납품 수수료율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유통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출하 농가에 판매액의 12~15%를 납품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수수료를 중 3%p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1%p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로써 농가는 기존 12~15%였던 수수료 부담을 8~11%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지원은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당 반기별로 최소 1000원 이상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소농부터 전업 농가까지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

고창군은 건축물 소유자인 군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소에 별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표시변경, 멸실(철거)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시 군청에 방문,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한 후 다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야 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시 등기촉탁을 함께 신청하면 고창군이 등기소 업무까지 일괄 대행하는 '원스톱 등기촉탁 처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행정처리 일원화의 효과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의 뜻 모아 '새암달빛광장'

정읍 도심광장 새 이름 확정... 시민 37.4% 선택

정읍시가 옛 정읍우체국 부지에 조성 중인 도심광장의 명칭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 '새암달빛광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선호도 조사에서 이 명칭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작을 알렸다.

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 전 직원까지 참여한 이번 조사에는 총 232표가 집계됐다. 개표 결과 '새암달빛광장'이 106표(37.4%)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샘고을광장'이 81표(27.6%)를 얻어 약 9.8%p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선정된 '새암달빛광장'은 정읍의 옛 지명인 '새암'과 '달빛'을 결합한 조어다. 이는 정읍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밝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도심광장 조성 사업은 옛 정읍우체국 부지를 활용해 원도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8년까지 총 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확정된 명칭을 광장 설계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새암'이 상징하는 생명력과 '달빛'의 아름다움을 디자인 콘셉트로 설정해, 바닥 패턴과 아트월 등에 정읍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스토리를 입힐 계획이다.

공간 구성 또한 시민 편의에 중점을 뒀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사호 시연회 개최... 한·중 도자문화 교류 본격화

중국 강소성 이싱시 자사호 대사 부안 방문

부안군은 중국 강소성 이싱시의 대표적인 자사호(紫砂壺, 차를 우려는 주전자) 제작 대가 및 도예가들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안청자박물관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안청자박물관과 이싱시 도예계 간의 도자문화 교류를 통해 고려청자문화와 자사호의 예술적 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단은 중국 국가급 공예미술사 관웨이훙(范伟峰?FANWEIQUN) 대사를 비롯해 위진(魏震?WEIZHEN), 관지(范?FANJIE), 판 wen jun(范文俊?FANWENJUN), 쉬 청 안(?戚安?XUCHENGAN), 천 보 강(?伯强?CHENBOQIANG) 등 총 6명의 이싱



시 도예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중국 이싱시에서 직접 가져온 자사 원토를 이용해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부안청자박물관에서 자사호 다관 제작 시연을 진행하며 중국 전통 도예기법과 조형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싱시 상감 자사호 도자기와 부안 고려청자감정자 간 교류전 개최 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도자문화 공동 전시 및 상호 방문 전시 추진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부안청자박물관의 창작스튜디오 입주자가 프로그램에 이싱시 도예가를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해 국제 도예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창작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고려청자의 전통을 잇는 부안상감청자의 예술성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이싱시 자사호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중 도자문화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4회 고창군 소상공인의 날 성료

지역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 화합과 상생의 장

고창군과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치호)가 지난 19일 '2025년 제4회 고창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고창군소

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 앞서 (유)세광전기 전치호 대표가 고창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주)다온 아이앤씨 이명운 대표가 고창 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고창군의 발전과 지역사회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또한 소상공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에게 고창



군수 표창, 군의회 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등 각 기관의 표창이 수여됐고 동안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경제 침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 권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복숭아 산업 발전 방안 논의

권익현 부안군수, 시설복숭아연구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9일 부안푸드엔레포츨센터에서 시설복숭아연구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복숭아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시설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현장을 직접 살피고,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20농가가 125동, 약 6.3헥타르 규모로 시설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농가당 연간 평균 소득은 6.611㎡(2,000천평) 기준 약 1억원 내외로 지역 농업의 유망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4농가에 총 5천3백여만원을 지원, 냉해방지용 팬 설치



등을 추진하며 시설 복숭아 산업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회 회원들은 공동선별장 부재로 인한 선별작업의 어려움, 작목별별 당도측정기 도입 필요, 농장 입간판 설치요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농산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맞춰 온라인(우체국쇼핑, 쿠팡) 판매 확대 등 신규 판로 개척 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업인 안전실천 경진대회 '우수상'

정읍시가 추진해 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전국 무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인 단풍미인수박 공선출화회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업인 안전실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인 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의 실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단풍미인수박 공선출화회는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 분석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천 항목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작목



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모델을 실제 작업 현장에 적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작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이에 맞춘 안전장비와 보호구 보급, 전문가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인 100세 버스' 올해 일정 성료

정읍시가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농협과 협력해 관내 65세 이상 농업인들에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와 농협이 함께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내 농협을 비롯해 정읍아산병원 의료진,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전북과학대학교, 정읍남매안경원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업인과 조합원들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